

## 疎外論의 經營學的 再吟味

宋 錫 勳

### 目 次

- I. 序 論
- II. 疎外論의 發展 概要
- III. 疎外의 構成要素
- IV. 疎外論의 經營學的 重要性
- V. 結論 및 提言

### I. 序 論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을 가장 매혹시키는 경영이론은 아마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벤치마킹(benchmarking),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두 기업혁신의 돌풍을 일으켜 보자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서 상호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는 이론이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것처럼 수용되고 있다. 경영조직론의 측면에서 보면,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기존의 조직설계 및 관리 원칙을 벗어나 기업조직을 새로운 視角으로 설계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적용하려는 것이 리엔지니어링이고, 성공한 회사를 준거로 배우고 나아가서 추월하도록 하는 것이 벤치마킹이며,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던 정보를 최종사용자에게 분산시키고 인력을 절감하려는 것이 다운사이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것을 다시 경영현실에 적용하도록 시도했으며, 흔히 강조되고 있는 의식혁신, 기술혁신, 경영혁신의 과제와 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소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업조직의 의식혁신,

기술혁신, 경영혁신의 3대 혁신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등을 비롯한 모든 경영분야의 이론들을 경영현실적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율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용하려면,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사회에서 폭증하다가 잠재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소외적 행동에 대한 관심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소외의 개념은 현대 산업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면서도 최소한의 정의조차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논자와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져온 소외의 개념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그러한 개념 및 구조를 포함한 이론을 역사적으로 전개한다. 이와같이 소외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것은 소외의 개념이나 관점이 시기별로 논자의 視角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외론의 적용영역이나 연구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 및 전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외의 개념이 시대상황이나 논자에 따라 각양이므로 그 구성요소들도 다양하다. 그러나 난삽하거나 각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외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소외론을 다루거나 연구하고 적용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난삽한 요소 가운데 최소한 공통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과 그러한 이유나 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소외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외론은 철학이나 사회학 또는 심리학의 전유물처럼 다루어져 왔으며, 경영학 분야에서 거의 다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현상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노동을 비롯한 산업현장의 소외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해결방안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으나, 경영학 분야에서는 강건너 불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를 등한시키고 있었다. 소외된 근로자에게 소외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맡겨버리고, 직무만족, 조직애착, 직무몰입에 나아가 신바람을 일으키는 것만 강조했다. 경영학자들은 기업가들이나 경영자들이 원하는 용어만 잘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외는 문제의 용어처럼 회피하거나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외론을 경영학 분야에서 적용하고 다루어야 될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시대와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소외론을 전개하고, 그 통합적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에 이러한 소외론의 최근 동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산업현장이나 경영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소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한다. 그리고 소외문제가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만큼, 경영학 분야에서 소외 연구 및 소외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재음미해 본다.

## II. 疎外論의 發展 概要

소외론은 고전적 소외론과 현대적 소외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고전적 소외론은 자연법론적 소외론, 인간존재론적 소외론, 사회현상론적 소외론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현대적 소외론은 현대사회비판이론과 경험적·실증적 소외론으로부터 통합적 동향으로 세분할 수 있다.

고전적 소외론의 사상적 선구자들은 17세기 이래 18세기 말에 이르는 시민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진 서구의 근대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민감한 일부 철학자나 사상가들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 예로서는 Rousseau, Hegel, Heidegger, Sartre, Feuerbach, Marx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자연법론적 소외론을 전개하고 그러한 소외개념 형성에 공헌을 한 대표적인 자연법론자는 Rousseau이다. 자연으로부터 인간소외에 대한 그의 사상은 문명이 인간을 부패시키고,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적 성질과는 소원한 모든 종류의 악을 외부로부터 초래하게 된다고 매도하고 있다. 제도에 의한 인간의 지배, 도시에 만연한 여러가지 악덕, 인위적인 욕구와 불필요한 욕망의 증대는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문명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며, 이와같이 철저한 계산에 근거한 문명에 대한 근본적 책임을 화폐와富有에 바탕을 두고 파악했다(Meszáros, 78, pp.54-55). 여기서 소외의 원인이 되는 문명의 발전은 사회의 완성을 가져오지만 인류를 타락시키고 인류의 모순을 격화시키는 소외양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Rousseau는 소외가 인간 내부의 작용보다 인간 외부적 환경의 변화, 즉 문명의 발달에 의해 초래된다고 본 것이다. 근본적으로 선하고 자연과 양립될 수 있는 인간이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와 인류의 모순을 격화시키는 소외양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으로 소외가 인간 자체보다 외부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을 가졌다. 그의 주장은 다소 공허한 감이 없지 않으나 Hegel과 Marx에 의해 주도된 근대사회의 비판과 소외의 개념을 형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둘째, 인간존재론적 소외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Hegel, Heidegger, Sartre 등이다. Rousseau로부터 영향을 받은 Hegel은 의식의 대상을 의식 외부에 있는 현실적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의식과 대상간의 관계는 한 의식과 다른 의식의 대립 가운데서 생기는 자기의식의 관계로 환원된다는 것이다(정문길, 84, pp.54-55).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소외의 양상은 대상의식과 자기의식의 대립상태, 즉 유한하고 부자유스러우며 공동성을 상실한 각 개인이 서로 소외·대립하는 자기소원된 정신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Hegel은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려면 絶對知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같이 絶對知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변증법적 방법에 의한 대상의식과 자기의식의 극복으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는 절대정신에 이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주체를 통하여 객체를 인식하고, 주체를 통하여 객체를 실현하게 된다. 바로 소외가 극복된 상황은 절대정신의 회복상태로서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자유를 매개로 하여 공동성을 실현하게 된다(정문길, 78, pp.35-36). 이러한 Hegel의 입장은 관념론적이거나 반동적 현실옹호라는 정치적 측면이 있으나 Feuerbach를 거쳐 Marx에 이르는 소외론을 미성숙한 상태에서나마 전면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Hegel식의 인간존재론자에 귀속되는 Heidegger는 인간의 존재(Dasein)가 고유의 자기존재 가능성을 망각하고 타성화된 일상적·평균적 존재의 이해속에 몰입해 있을 때 소외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외의 주체는 존재 일반이며, 소외의 원인은 모든 존재를 인식의 대상으로서만 파악하여 주관의 대상이 아닌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그는 소외의 극복방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형이상학, 초월, 불안 등을 들고 있다(하이데거, 82, pp.22-23). 그는 어떤 존재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일반, 곧 無속에 들어가는 것, 즉 모든 사물을 넘어서는 운동이 초월이며 형이상학이고, 불안이라는 곧 근본적인 기분이 無를 드러낸다고 했다. 그러므로 소외가 극복된 상태는 존재일반을 추구하는 인간 근원적 노력에 의한 존재에의 귀속, 즉 존재자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Heidegger의 소외론 역시 정치·경제적 문제를 결여한 추상적 이론이다.

Heidegger의 영향을 받은 Sartre는 아울러 인간존재론적 측면에서 Hegel의 절대적 영향 아래에 있었다. 자기존재의 형태를 갖지 못하고 언제나 존재 결핍의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인간은 그의 존재 자체 내부에 소외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정

문길, 84, pp.55-56). 그러므로 소외의 양상은 의식의 物化現象에 의한 비본래적 인간(ego), 소유하는 인간의 생활이 된다. 여기서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식을 근원적으로 변혁하는 것이며, 소외가 극복되면 본래의 인간(self)으로 회복되어 창조적인 삶이 영위된다고 본다. 이와같이 소외가 극복된 존재형태는 Hegel의 절대정신, Heidegger의 존재에의 귀속에 비유된다.

이러한 Sartre의 소외론은 인간이 진정한 자기자신으로 확인하기를 거부하는 對自의 존재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확인될 수 밖에 없다는 자기소외의 운명론적 성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소외 없는 인간 존재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Hegel, Heidegger, Sartre의 인간존재론적 소외론은 임의론적이고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며, 인간일반을 대상으로 거시적 수준에서 소외론을 다룬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간존재론적 소외론은 자연법론적 소외론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환원주의, 본질주의, 그리고 규범적 판단의 문제와 관련되어 다분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경향이 있다(Schweitzer, 81, pp.536-538).

셋째, 인간존재론적 소외론이 다분히 이론적이라면 사회현상론적 소외론은 상대적으로 실제적이다. 즉, 인간존재론적 소외론을 바탕으로 실제의 사회제도와 관련시켜 소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 소외론자들로서는 Feuerbach와 Marx가 있다.

Feuerbach는 Hegel과 Marx의 소외론에 교량적 역할을 했으며, 神에 대한 인간의 자기소외 현상을 주장했다. 그는 신이 인간의 자기소외의 산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의 類的本質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되어 신으로부터 대상화 되고 소외된다는 것이다(정문길, 78, p.47). 그래서 소외의 주체가 되는 인간일반은 초자연적인 신으로 인하여 자기의 주체성과 인간성에서 소외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소외의 극복방법은 인간이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고 종교의 허위성을 배제 하므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生來의 자연적 요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소외가 극복된 상황은 초자연적인 신에 전면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유적본질을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Feuerbach의 사상적 한계는 모든 것을 종교적 개념이나 신학적인 것으로 비판하므로, 경제·사회적 현실과 무관한 추상적 이론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적 취약성은 Marx에 의해 지양된다.

Feuerbach가 소외의 주체를 인간일반으로 봤으나 Marx에 있어서 유일한 사회적

현실은 인간일반이 아니며, 개인도 아니고 단지 경제적 계급들이기 때문에 소외의 주체는 노동자와 자본가라고 볼 수 있다(터커·샤프 외, 83, p.98). 즉, 무산계급으로서의 노동자와 유산계급으로서의 자본가의 관계에서 파악된다. 또한 Feuerbach에 있어서 종교는 인간이 그것을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원인이 되는데 반해, 이제 Marx에게는 사적 소유제도, 사회적 분업, 임금노동, 교환, 화폐, 임대, 이윤, 가치 등의 제도화, 物化, 妹體 등이 소외의 원인이 된다(정문길, 78, pp.83-88). 그 결과로 노동자는 노동활동 자체에 몰입하지 못하고, 더 이상 노동을 의미 있는 창조적 활동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노동생산물이나 노동과정에 대한 무기력감을 가지며, 유적존재, 타인 및 物神화된 화폐로부터 소외되는 양상을 나타낸다(Erikson, 86, p.2).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Marx는 근대사회에서 가장 극심한 소외를 경험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진정한 인간관계 성취의 역사적 의무 담당자로서 전면적 내세워 소외 유발적 생활환경 자체를 근원적이고도 총체적으로 변경·해소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Marx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의식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유적본질을 확증하고 세계를 인간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정문길, 78, pp.89-94). 또한 그는 사유재산·사회적 분업·계급 및 국가의 지양을 소외극복의 기본적 전제로 생각한다(정문길, 78, pp.94-103).

이와같이 Marx는 Hegel이나 Feuerbach처럼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제도의 현실적 문제와 관련시켜 소외론을 조망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유물론적인 경제문제로 환원시켜 파악한 유토피아주의가 Marx의 결점이다. 즉, 경제체제의 공산주의화 또는 사회주의화에 의해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을 歸一시키려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또 다른 물리적 힘을 유발하여 결국 새로운 지배와 관리계급을 발생시키고 노동소외문제는 여전히 잔존한다는 현실을 看過한 것이다.

이상에서 고전적 소외론은 자연법론적 소외론, 인간존재론적 소외론, 사회현상론적 소외론으로 구분하여 요약해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소외론의 전례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Hegel의 관념론적 이론과 Marx의 실재론적 이론이다. Hegel과 Marx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傳承·再編成한 유형은 Fromm과 Marcuse를 비롯한 거시 사회학자들의 현대사회 비판이론과 Seeman을 비롯한 경험적·실증적 사회학자들의 소외현상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현대사회 비판이론은 19세기말에 이르러 이미 그 비판

정신과 否定의 정신을 상실한 사회이론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Marx사상의 Hegel적 근거를 추적하려고 노력했다. 전통적 Marx주의의 재편성이라는 과제를 염두에 두고 형성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문적 경향은 폐쇄된 철학적 체계, 즉 교조화된 Marx주의에의 혐오를 그 핵심으로 하는 비판이론이다. 1930년대 이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요한 관심은 물질위주의 경제적 측면에서부터 근대사회의 문화적 상부구조로 이행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Fromm은 근대사회의 거의 전체적인 것을 소외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인간의 노동·소비물자·국가·친구 또는 그 자신 등에 대한 사람의 모든 관계에 소외현상이 遍在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활동으로부터, 경영자는 형식적·합리적 조직으로부터, 자본가는 경영권으로부터, 일상인은 사회적 생활규제력으로부터, 인간일반은 자연·사회·이웃·타인·자기자신·자아본질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본다(프롬, 82, pp.335-353). 이러한 소외양상은 무엇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에나 遍在하는 전폭적인 현상이며, 그러한 경우의 인간은 무기력감, 무의미감, 고립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Schacht, 70, p.124).

그는 소외의 극복방법으로서 심리적 메카니즘, 즉 도피 메카니즘을 권위주의·파괴성·자동인형적 순응메카니즘으로 구분했으며, 이들은 개인의 고립감, 무기력감, 무의미감을 의식하는데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프롬, 82, pp.134-181). 여기서 권위주의적 메카니즘은 개인이 그의 통일성을 포기하고 더 큰 힘에 스스로를 귀속시키는 것이고, 파괴성의 메카니즘은 그 대상을 파괴하므로써 외부세계가 더 이상 그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동인형적 순응은 개인이 그의 자아를 포기하므로써 문화적 형식이 제공하는 퍼스널리티를 수용하므로써 개인은 인간일반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Fromm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제도의 근원적 개혁과 이성을 통한 현실의 각성을 강조하지만, 폭력수단적 혁명은 반대하며, 중기 목표를 달성하므로써 이상적인 최종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장했다(정문길, 84, pp.134-136). 여기서 Fromm이 목표로 하는 소외가 극복된 상황은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 즉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이 富, 권력, 권위에 지배되지 않고, 인간의 깊은 신뢰에 基調를 둔 인간주의를 구현하고 창의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가 된다(프롬, 82, pp.213-227).

이와같이 Fromm이 사회적 소외론은 Marx의 소외론을 도입하고 개인적 소외론은 Freud의 이론을 통하여 특유의 인간주의적 정신분석학을 수립한 것은 新Freud학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위를 확보하게 했다. 그러나 Marx의 이론과 Freud의 이론이 상호 이질적이고 별개의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도 동일한 차원으로 통합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비평을 듣고 있다.

Marcuse도 문화 내지 문명은 인간본능의 영구적인 억압과 강제 위에 성립된다는 Freud의 이론을 재검토하고 억압 없는 문명의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마르쿠제, 82, p.16). 그는 선진 사업사회의 비판이론을 전개했으며, 그의 기본적인 命題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가 한결같이 기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선진 사업사회가 규정하는 1차원적 思维,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한 합리적 지배형태 등이 소외의 원인이 되어 인간일반을 소외의 주체로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소외의 양상은 기존 사회에 오염되어 현상유지적으로 安住하고, 자기확신적·자기만족적 상식이나 기존 사실을 용인하며, 비평이 마비되고 반대가 없는 상태가 된다(마르쿠제, 82, pp.52-62).

소외의 극복방법을 Marcuse의 이론으로부터 찾는다면, 기만적이고 일차원적인 사회의 경직성을 부정하고 다차원성을 지향하며, 현상유지적인 기존 상식을 부인·타파·초월하는 비판적·부정적 사유활동을 전개하고, 공동체 건립으로 人間愛를 구현하고, 기술위주의 기존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소외가 극복된 상황은 자연적·인간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복귀하는 것이 된다(마르쿠제, 82, pp.148-164).

Marcuse는 구태의연한 기존사실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지 않는 비판의식과 고발정신을 강조하므로써 체제변혁의 이념을 형성시키고, 그 이념을 사회운동으로 실질화 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 이론은 전반적으로 형이상학적이므로 이론을 일반화 또는 단순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둘째, 경험적·실증적 소외론은 실제의 사회적인 상황에 소외론을 관련시켜 개인의 심리상태를 검정하여 보편적인 결론을 추출하려는 입장이다. 고전적 소외론의 자연법론적·인간존재론적·사회현상론적 측면과 현대적 소외론의 현대사회비판론적 측면이 간접적으로 관련성 있게 전개되면서도 직접적·실증적인 뒷받침 없이 이론 위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소외의 개념은 가장 광범하게 사용되면서도 誤用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



그래서 경험적·실증적인 방법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소외론은 사회·심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여기서 소외의 주체는 행위자, 개인, 또는 개인적 심리상태의 승으로서의 집단이다. 소외의 원인도 개인적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한 사회적·개인적 제반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소외의 양상 역시 논자에 따라 각양으로 제시되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들로서 가장 흔히 표현되는 것은 Seeman이 제시한 무기력감, 무의미감, 무규범성, 문화적 소원감, 자기 소원감, 사회적 고립감 등이다(Seeman, 59, pp.783-791). 그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경향이 몇가지 소외형태를 거쳐 개인의 행동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Seeman의 소외의 의미를 사용했으나 산업사회의 노동현상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수정하여 적용한 대표적인 사람은 Blauner이다(Blauner, 64, pp.15-34). 실제로 그가 강조한 것은 노동의 본질에 관한 기술의 영향과 개인적 소외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경험적·실증적 소외론은 사회·심리학적 배경을 가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매우 광범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여기서 소외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며, 소외의 원인도 개인적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이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소외론은 개인에 대한 직무 및 상황의 특성을 다루는 실제적 이론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부적 상황 또는 환경이 개별적 인간의 소외양상을 결정한다고 본다.

이와같이 소외유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소외양상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것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자간의 매개변인으로서 욕구성향의 차이에 따른 소외양상을 분석한 것이 동기부여적 접근법이다. 동기부여적 체제에 의하면, 직무소외 및 노동소외는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직무나 일반적 노동에 있어서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다(Kanungo, 82, pp.87-90). 또한 Kanungo는 소외의 대상으로서 직무와 노동을 구분하여, 직무소외는 記述的 수준에서 노동소외는 규범적 수준에서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Kanungo, 82, pp.79-80). 즉, 그는 고립감, 무규범성, 무의미감, 무기력감, 자기소원감 등의 노동소외양상을 결연욕구, 자기평가욕구, 자아욕구, 자기실현욕구 또는 성취욕구 등의 개인적 욕구성향과 관련시켜 설명했다. Sashkin과 Morris도 무기력감, 무의미감, 고립감 등의 소외양상과 권력욕구, 성취욕구, 결연욕구 등의 개인적 동기와 조직의 노동상황요인에 관한 대립적 관계를 제시했다(Sashkin & Morris, 84, p.248).

그런데 경험적·실증적 소외연구에 관해서는 소외의 사회·심리학적 개념규정 및 상황 관계나 판단 또는 방법론에 따른 몇가지 비평들을 열거할 수 있다(Seeman, 72, pp. 505-515). 즉, Seeman에 의하면 경험적·실증적 소외연구는 사회·심리학적 접근법과 철학적 접근법의 대립문제,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감정관계, 규범적 판단배제의 문제, 인간본성과 논리적 일관성 관계, 중복 및 평범성의 문제, 소외추정의 졸속성 및 창의성 결여의 문제, 소외 개념 통일성의 문제 등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경험적·심리학적 환원과 가치중립회는 고전적 개념을 세속화 하거나 인간성을 말살시키므로서 그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했다는 비평도 받는다. 소외를 심리학적 변인이나 태도적 측정치로 환원하므로서 그 의미상의 강조점이 규범적 평가로부터 記述的 분석으로 변동되었다(Schweitzer, 81, pp.538-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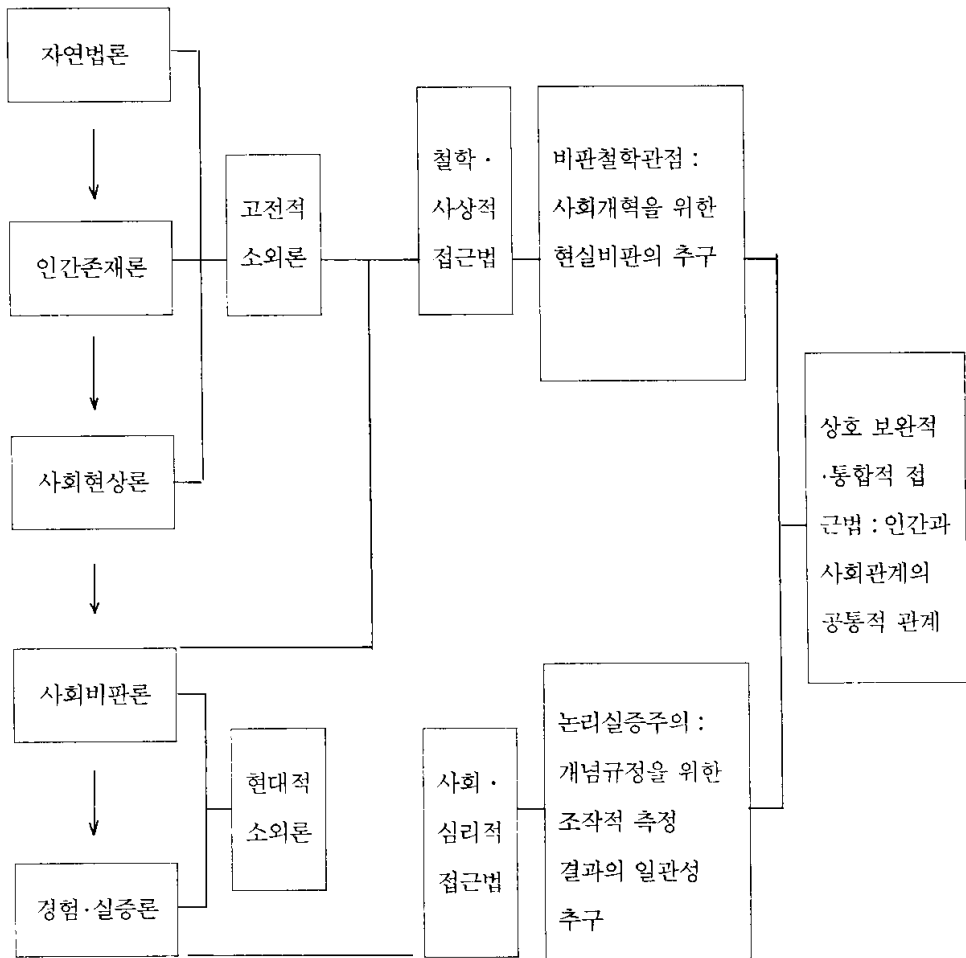
끝으로, 소외론의 통합적 동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여년간 발생한 소외에 관한 개념, 용어, 동의어 등이 급증하므로서 이에 상응하여 소외의 모든 변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핵심적 주제, 공분모, 통일된 다차원적 개념을 발견하려는 관심이 일어났다. 그러한 제안은 소외가 어떤 통일성을 가지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면서도 공통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소외의 용어 및 개념을 급증시킨 한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은 Seeman이 원래 5개 심리학적 소외의 범주를 개념화 한 것으로부터 나온다. 약간 대조적으로 Schacht는 다양한 소외변인들간의 통일성의 개념을 거부하지만 그들간의 유사성을 거부하지 않는다(Geyer & Schweitzer, 76, pp.133-150).

그러나 아주 추상적 수준에서 보게 되면 소외에 대한 Seeman의 심리학적 변인들 가운데 적어도 공분모는 실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조작하는 이론가들도 있다. 이와같이 Seeman의 변인들 가운데 공분모를 설정하면서도 모든 소외의 변인들이 하나의 통일된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부정적 함축성이 없는 가치중립성의 의미에서 또 다시 파악된 환원주의 문제의 또 다른 설명에 관련된다. Seeman은 심리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지만 Marx는 사회학적 접근법을 사용했다. 양자의 통일은 사회과학의 존재론에 대한 더욱 일반적 문제에 의존한다(Schweitzer, 81, p.542). Seeman은 통합성을 회복하기 위한 4가지 주요한 방법으로서 사회적 과정의 개념에 의한 통합, 사회적 전제요건의 개념에 의한 통합, 통계적 일관성에 의한 통합, 핵심적 주제의 식별에 의한 통합 등을 권장했다(Seeman, 72, pp.512-513).

그러나 철학적 지향성을 갖는 논자들은 개념상의 통일성을 찾으려는 사회학적 노력이 근원적 사회비판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배제하고 있는 한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의 근거는 보수적 이고 비판적인 Durkheim의 아노미 개념을 급진적이고 낙관적인 Marx의 소외개념과 결합시키려는 企圖 자체의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Seeman도 지적하고 있다(Seeman, 72, pp.513-514).

〈그림 1〉 소외론 전개에의 개괄적 관계



그러므로 소외개념상의 혼란은 개념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소외에 대한 철학적 접근방법과 사회학적 접근방법은 〈그림 1〉에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론 논쟁의 전반적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비판철학적 관점과 논리실증주의가 상호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평행선상에서 상호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철학·사상적 접근법은 사회개혁을 위한 현실비판을 추구하게 되고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은 소외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조작적 측정결과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흘렀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의 연구경향은 언제나 당면하고 있던 인간과 사회관계의 공통적 과제로서 수용한다면 상호 보완적·통합적 접근법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소외론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각기 별개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고전적 이론으로부터 현대적 이론에 이르기까지 각 이론의 상대적 대립과 그 모순을 지양하려는 융합적 발전이 지속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외론에 대한 점진적 변화와 발전의 개념은 고전적 이론으로부터 현대적 이론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고찰하면서 상호 보완적 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 Ⅲ. 疎外의 構成要素

앞에서 소외론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요약하면서 소외의 개념과 이론적 구조를 고찰해왔다. 이제는 기존의 소외론을 바탕으로 여태까지 노동소외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사용된 소외의 구성요소를 파악해본다.

노동소외의 개념이 분석적으로 복잡하고 그 것을 이해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그 것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그 개념은 더 단순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것 가운데 하나는 Marx가 현대적 노동여건에 의해 유발된 심리적 상태를 기술하기 위하여 경제적 상황에 사용한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이와같이 소외된 심리적 상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하여 결여되어 있고 노동자 자신의 노동에 의한 생산물을 직접적으로 향유할 기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는 것을 거듭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노동소외를 유발하는 원래의 여건은 더욱 확대되어, 반복적이거나 기능을 거의 요구하지 않거나 의사결정할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거나 그 외에 조직 및 직무의 여건이 개인의 특성과 불일

일치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노동여건을 포함하게 되었다.

Seeman은 어떤 여건하에서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외의 구성요소를 무기력감, 무의미감, 무규범성, 고립감, 자기소원감 등으로 구분했으며, 여태까지 가장 포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eeman, 59, pp.783-791).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기력감, 무의미감, 무규범성 등을 소외경향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고립감, 자기소원감 등을 결과 또는 주관적 감정상태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Browning, et al., 61, p.780).

특히 Blauner의 연구가 중요한 것은 Seeman의 소외 구성요소 가운데 4가지 요소를 작업현장에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무기력감은 노동자가 작업활동에 대하여 거의 통제를 못한다고 느낄 때 존재하고, 무의미감은 노동자들이 전반적 생산과정에 거의 공헌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존재하고, 고립감은 작업조직, 작업목표, 동료노동자 등과 동일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며, 자기소원감은 노동자들의 과업이 본질적으로 과업 자체에 있어서 보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규범성은 분명한 구성요소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Blauner, 64, pp.15-34).

또한 Seeman은 현대적 연구와 이론에서 은연중에 활발히 소외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는 관념으로서의 잠재적 소외가 확산되어 있고 변화다양하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소외에 관한 3가지 문제와 현대적 이론구성을 위한 소외의 구성요소를 제시했다(Seeman, 83, pp.171-172). 여기서 그는 소외에 관련된 문제로서 개념적 불명확성, 개인적 태도 및 특성 지향적 접근법, 시기 적절성 등의 곤란성을 제시하고, 이미 그가 언급한 무기력감, 무의미감, 사회적 고립감 및 자기소원감 등과 같이 소외주체의 구성요소로서 식별된 근본 관념이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 분석에 필수적인 소외차원의 관점을 개발하려는 현대적 이론구성에 확대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Seeman, 83, pp.172-173).

Seeman이 소외의 차원을 포괄적으로 구분한 이후 오늘날까지 적용되거나 검토되어온 소외의 차원들은 Brown과 같이 Seeman이 제시한 차원을 그대로 노동소외의 측정치로 적용한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Seeman이 제시한 구성요소 가운데 일부를 적용한 경우도 있으며, 어떤 연구자는 Seeman이 제시한 구성요소를 더 세분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추가한 경우도 있으나 극히 드문 편이다. 이러한 결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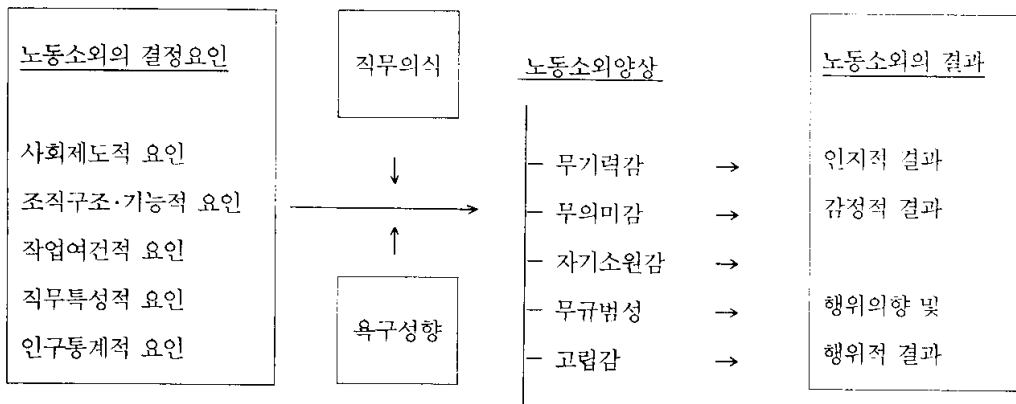
비추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소외의 구성요소는 전반적으로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감, 무규범성(아노미 포함), 무의미감, 자기소원감, 가치(문화)적 고립감 등의 6개 요소가 대부분 적용되었고, 그 외에 적용빈도가 극히 낮지만 연구자에 따라서 절망, 인간혐오증, 자기경멸, 인생불만, 태도 불확실성, 불일치성, 환멸감, 불신감, 허무주의, 모험성 등을 적용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소외의 구성요소 가운데 적용 빈도가 높은 것은 무기력감, 무의미감, 무규범성, 자기소원감, 고립감 등이다.

이러한 소외의 구성요소는 포괄적으로 소외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문헌에 의하면, 소외의 각 구성요소와 인지적 복잡성(Planchon & James, 91, pp.189-198) 및 부정적 행위의향(Song, et al., 92, pp.116-118 ; 송석훈, 93, pp.123-144)의 영향관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외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영향을 받는 요인들은 소외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소외의 구성요소는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IV. 疎外論의 經營學的 重要性

노동소외의 구성요소(노동소외양상)를 중심으로 그러한 요소와 관련된 영향관계를 파악하면 너무나 복잡하다. 그렇다고 노동소외의 영향관계는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그림 2〉 노동소외현상의 영향관계



것이라고 그대로 두면, 노동소외의 영향관계에 관한 이론은 언제나 산만한 상태로만 존치하게 될 것이다. 노동소외현상의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한가지 예를 들면, 그 개괄적인 관계는 <그림 2>와 같이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송석훈, 90, p.126).

<그림 2>에서 노동소외양상(노동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또는 상황적 요인은 거시적 차원부터 미시적 차원으로 구분하면 사회제도적 요인, 조직구조·기능적 요인, 작업여건적 요인, 직무특성적 요인, 인구통계적 요인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소외를 결정하는 요인과 노동소외양상 사이의 영향관계에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매개적 변인은 직무의식과 욕구성향이다. 즉, 노동소외를 결정하는 상황적 요인들이 거의 유사하더라도 개인의 직무의식과 욕구성향에 따라 노동소외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소외양상은 포괄적으로 노동소외의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것보다 각 요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노동소외의 결과(행위의향 및 인지적·감정적·행위적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다(송석훈, 93, pp.123-144). 물론, 노동소외현상의 영향관계는 Feedback 내지 상호작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송석훈, 90, pp.227-246). 그러나 여기서는 소외양상이 경영현상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소외양상을 중심으로 그 선행적 요인과 그 결과적 요인만 개략적으로 제시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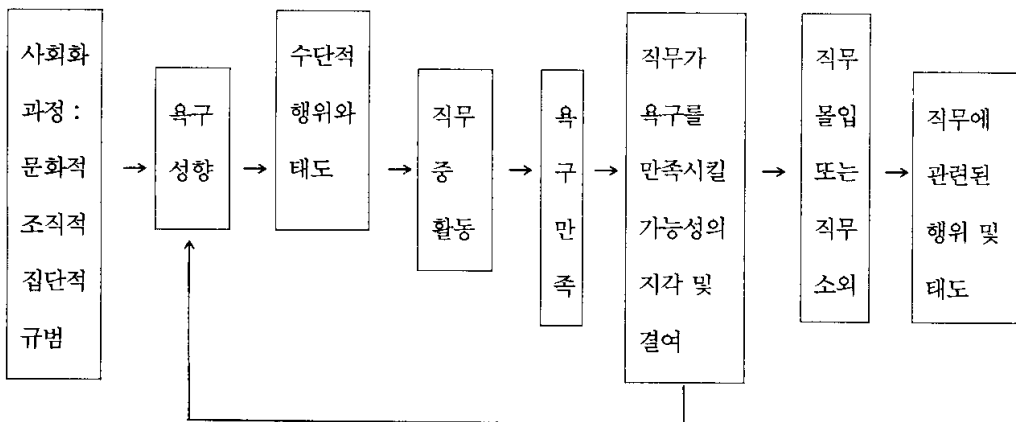
특히, 경영현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동소외가 근로자의 부정적 행위의향이나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동소외현상은 근로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소외된 노동자들은 창의력, 인간성, 목표의식이 결여되고 변화에 저항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Cooper, 69, pp.161-163). 더우기, 노동소외양상은 불신(Brill, 74, pp.26-29), 노동쟁의(Garson, 72, pp.68-72), 생산성 감소, 노조의 苦情, 근무태만(Ford, 69, pp.301-310), 노동불안, 결근, 노동이동, 불복종, 산업재해 및 생산방해행위(Afonja, 78, pp.135-157), 그리고 직무불만(Winefield, et al., 91, pp.145-154)과 같은 여러가지 태도적·행위적 반응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소외가 현대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드물 것이다. 그래서 소외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노동생활의 질적 수준과 조직의 유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의 태도와 관련된 조직의 유효성은 조직애착(organizational com-

mittment)과 직무몰입(job involvement)에 의해 결정된다. 즉, 구성원들의 조직에 착과 직무몰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조직의 유효성의 수준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말하면, 구성원들의 조직소외와 직무소외의 수준이 낮을수록 조직의 유효성의 수준이 높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몰입과 소외의 개념은 동일한 현상에 대한 상반된 측면으로 보게 된다(송석훈, 90, pp.89-90). 노동행위를 연구하면서 사회학자들은 소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심리학자들은 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Blauner, 64, pp.27-88; Brown, 69, p.99; Kanungo, 82, p.75). Blauner는 특히 자기소외감을 유발하는 활동은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이며, 만족은 현재보다 미래에 있으므로, 감정의 상태가 몰입보다 이탈의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의 관점은 소외로부터 무관심을 거쳐 몰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연속체로서 소외와 몰입을 구분한 Brown의 연구내용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므로 소외와 몰입은 상대적인 차이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소외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몰입의 수준이 낮다는 것과 같으며, 극단적으로 몰입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소외의 수준이 낮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무관심의 영역은 소외와 몰입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소외와 몰입을 동일한 현상에 대한 상반된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림 3>과 같이 직무의 몰입 및 소외와 그 원인 및 영향의 관계가 제시된다(Kanungo, 82, pp.82-85).

<그림 3>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직무 중 개인들의 행위와 태도는 그들 내부의

<그림 3> 몰입과 소외에 대한 원인 및 영향관계





욕구상태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개인의 욕구성향은 욕구(현재의 원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전의 사회화 과정(역사적 원인)과 직무와 같은 환경의 욕구를 만족시킬 가능성의 지각에 의존한다. 개인이 직무에 몰입되는가 또는 소외되는가를 파악하는 개인의 신념은 직무가 개인의 현저한 욕구를 만족시킬 가능성을 가지도록 지각되느냐 또는 안되느냐에 의존한다. 개인에 대한 다른 욕구들의 성향과 중요성은 개인의 과거 경험과 개인이 소속한 집단과 개인이 담당한 직무에 의해 결정된다. 상이한 집단들은 상이한 문화, 집단, 조직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와같이 그들은 상이한 욕구구조를 개발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 상이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황적 여건에서도 개인의 욕구성향이 소외양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근로자들의 소외감이 높게 나타나면 인지적·감정적·행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직의 유효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외문제는 경영현실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며, 태도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관리문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속히 진단하고 예측하고 통제해야 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분야에 있어서 직무·노동·조직과 관련된 소외의 문제는 연구자나 실무자도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직무몰입, 조직애착, 직무만족, 또는 신바람과 같은 과제에 과열적이고 경쟁적인 연구의욕을 경주했다.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에 몰두하고 조직에 애착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신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한 것이 경영학 연구자의 사명이요 경영자들이나 관리자들을 위하고 기업을 위하는 것으로만 인식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근로자들의 소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직무몰입이나 조직애착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외와 몰입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경영자 또는 관리자나 연구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직무몰입, 조직애착,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연구에서 인기 있는 용어가 되고 있는 신바람과 같은 태도적 변인들은 측정 가능하더라도, 소외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통합적이고 다분히 포괄적이다. 그러나 소외는 적어도 그 구성요소를 무기력감, 무의미감, 무규

범성, 자기소원감, 고립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적 변인들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분석적이다.

여기서 몰입지향적인 관점은 추상적·포괄적이고 밝은 측면에서 조직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나, 소외지향적인 관점은 상대적으로 구체적·분석적이고 어두운 측면에서 조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진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경영현상에 대하여 몰입지향적인 관점을 가지면 다분히 이상적인 경향이 있으나 소외지향적인 관점을 가지면 다분히 현실지향적인 경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소외된 근로자들에게 직무몰입이나 신바람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성인병 환자들에게 어떤 성인병이든지 인생에 만족하고 즐겁게 열성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소외된 근로자들에게 소외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은 성인병 환자들에게 그러한 성인병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기타 어떠한 것인가를 진단하고 각기 적합한 처방을 차별적으로 강구하는 것에 비유된다.

그러므로 양 관점이 모두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영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동일한 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포괄적·추상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분석적·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영학 분야에서 근로자의 태도를 조직의 유효성과 관련시켜 파악하기 위하여 몰입이라는 안경을 사용했으나 소외라는 안경은 아예 찾으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같이 몰입이라는 Tunnel Vision으로만 경영현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현실은 소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나 신바람이 곧 유발될 것 같은 방향으로 일관된 연구경향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그동안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직도 잠재해 있는 경영현실의 소외적 태도와 행동을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아야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처럼, 직무·노동·조직 소외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석적·구체적 관점에서 경영현실의 소외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자와 실무자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V. 結論 및 提言

현대 산업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데 있어서 소외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면서도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소외문제는 경영학 분야에서 거의 등한시되고 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먼저 소외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대적 상황이나 논자에 따라 상이한 소외의 개념을 압축적·역사적으로 전개하고, 난삽한 소외의 구성요소 가운데 공통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과 그러한 이유나 관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러한 소외문제의 연구가 경영학 분야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른 분야보다 경영학 분야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자연법론적 소외론을 비롯한 사회현상론적 소외론, 사회비판론적 소외론은 집단수준 이상의 인간일반을 대상으로 거시적 수준에서 소외론을 다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론은 모두 환경결정론적이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며, 사회의 구조 및 기능적 측면을 고찰한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런데 인간존재론적 소외론은 임의론적이고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며, 인간일반을 대상으로 거시적 수준에서 소외론을 다룬 것이다. 아울러 인간존재론적 소외론은 자연법론적 소외론, 사회현상론적 소외론, 사회비판론적 소외론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환원주의, 본질주의, 그리고 규범적 판단의 문제와 관련되어 다분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성향이 있다.

그리고 경험적·실증적 방법에 초점을 두는 소외론은 사회·심리학적 배경을 가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여기서 소외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며, 소외의 원인도 개인적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여건이다. 또한 사회·심리학적 소외론은 개인에 대한 직무 및 상황의 특성을 다루는 실제적 이론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부적 상황 또는 환경이 개별적 인간의 소외양상을 결정한다고 보다가 개인의 내부적 현상으로서 욕구성향의 차이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임의론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철학·사상적 접근법은 사회개혁을 위한 현실비판을 추구하게 되고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은 소외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조작적 측정결과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

으로 흘렀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의 연구 경향은 언제나 당면하고 있던 인간과 사회 관계의 공통적 과제로서 수용한다면 상호 보완적·통합적 접근법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시대적 상황과 논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전개되어온 소외론은 유기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고전적 이론으로부터 현대적 이론에 이르기까지 각 이론의 상대적 대립과 그 모순을 지양하려는 융합적 발전이 지속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외론의 전개과정에서 노동소외의 개념이 분석적으로 복잡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그 개념은 단순화 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소외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기력감, 무의미감, 무규범성, 자기소외감, 고립감 등과 같은 소외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영향을 받는 요인들은 그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소외의 구성요소는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현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동소외가 근로자의 부정적 행위의향이나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동소외현상은 근로자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소외와 몰입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으나, 몰입은 포괄적·추상적 차원에서 측정가능한 것인데 비추어 소외는 상대적으로 분석적·구체적으로 진단가능한 것이므로, 소외의 연구는 근로자의 태도와 조직의 유효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특히, 소외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장구한 세월을 두고 그렇게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그러한 문제와 직결된 경영학 분야에서는 소홀히 취급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난 소외적 행동과 아직도 잠재해 있는 소외현상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절감하면, 이제는 소외문제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통찰하고 경영현실의 소외문제를 진단·예측·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영자들이나 연구자들이 時流에 편승하면서 관심을 가지다가 보면 항상 횡단적이고 양적인 연구와 그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종단적이고 질적인 연구와 그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장구한 세월을 두고 산업현장의 소외문제를 다른 분야에서 연구하던 것을 이제부터라도 경영학 분야의 모든 과제와 함께 끈기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등을 비롯한 경영이론도 무조건 어느

조직이나 時流에 편승하여 단기적이고 협소한 안목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경제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현실과 기업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기업조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경영이론이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적합하더라도 무조건 모든 내용(what)을 모방하거나 열거하면서 경쟁적으로 우선 단기적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노동소외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how)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효과를 향상시키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 參 考 文 獻

- 마르쿠제, 차인석 역(1982), 「일차원적 인간」, 서울: 삼성출판사.
- 송석훈(1990), “직무소외적 행위와 그 수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학 연구」, 제20권 제1호, pp.227-257.
- 송석훈(1990), “직무소외와 그 관련요인에 관한 측정결과의 분석”, 한국인사관리학회, 「인사관리연구」, 제14집, pp.83-113.
- 송석훈(1990), “노동소외양상의 인과적 요소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노사관계연구」, 창간호, pp.125-154.
- 송석훈(1993), “직무소외적 요인과 부정적 행위의향의 인과관계분석”,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제23권 제1호, pp.123-147.
- 정문길(1978), 「소외」,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정문길(1984), 「소외론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터커·샤프 외, 조희연 역(1983), 「현대소외론」, 서울: 참한.
- 프롬, 이규호 外譯(1982), 「자유로부터의 도피」, 서울: 삼성출판사.
- 하이데거, 최동희 外譯, (1982),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삼성출판사.
- Afonja, S. A.(1978),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cidents, Alienation, and Withdrawal from Work”, *Labor Society*, Vol.2, pp.135- 157.
- Blauner, R.(1964), *Alienation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ill, A. E.(1974), "The Alienation of the Systems Analyst", *Journal of Systems Management*, Vol.25, January, pp.26-29.
- Brown, D. R.(1969), *Alienation from Work*,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Oregon, D. B. A. : University Microfilms, Inc.
- Browning, C. J., Farmer, M. F., Kirk, H. D., & Michell, G. D.(1961),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6, No.5, pp.780-781.
- Cooper, R.(1969), "Alienation from Work", *New Society*, Vol.30, January, pp.161-163.
- Erikson, K.(1986), "On Work and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1, February, pp.1-8.
- Ford, R. N.(1969), "The Obstinate Employee",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3, No.3, pp.301-310.
- Garson, B.(1972), "Luddites in Lordstown", *Harper's Magazine*, June, pp.68-72.
- Geyer, R. F. & Schweitzer, D. R. ed.(1976), *Theories of Alienation*, Leiden : Martinus Nijhoff Social Sciences Division.
- Kanungo, R. N.(1982), *Work Alienation*, New York : Praeger.
- Meszaros, I.(1978), *Theory of Alienation*, London : Merlin Press.
- Planchon, J. M. & James, W. L.(1991), "Cognitive Complexity and Alien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23, pp.189-198.
- Sashkin, M. & Morris, C. W.(1984), *Organizational Behavior*, Reston, Virginia : Prentice-Hall.
- Schacht, R.(1970), *Alienation*,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 Schweitzer, D.(1981), "Alienation Theory and Research", *International Sociological Science Journal*, Vol.33, No.3, pp.523-556.
- Seeman, M.(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4, December, pp.783-791.

- Seeman, M.(1972),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A. Campbell & P. Converse(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New York : Russell Sage Basic Books, pp.467-527.
- Seeman, M.(1983), "Alienation Motifs in Contemporary Theoriz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46, No.3, pp.171-184.
- Song, Serk-hoon, & Kim, J. S.(1992), "An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Job Aliena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among Korean Employees", *Pan-Pacific Conference(Proceedings)*, Vol.9, pp.116-118.
- Winefield, A. H., Tiggemann, M., Winefield, H. R., & Goldney, R. D. (1991), "Social Alienation and Employment Status in Young Adult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12, pp.145-154.